

“끊임없는 혁신…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 만들겠다”

강종만

영광군수

강종만 영광군수는 ‘영광 대전환, 행복동행’을 기치로 영광의 재도약을 위해 힘차게 뛴 준비를 마쳤다. 영광 대전환은 정신의 전환, 인식의 전환이 그 출발점으로, 지혜로움과 담대한 도전을 통해 두려움을 떨쳐버리겠다는 의미가 크다.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공존의 가치 지향적 사회를 만들어 간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 정신과 물질이 함께 성장·발전하는 균형의 행복한 지역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강 군수는 ‘위대한 영광, 그레이트 영광’을 민선 8기 군정비전으로 삼고 새로운 도전과 목표를 위해 나섰다.



◇청정부자도시 건설

청정부자도시를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과 물류·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산업단지의 생산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계획이다. 예산 1조원 시대를 만들어 찾아오고 싶은 영광, 살고 싶은 영광의 꿈을 실현할 예정이다.

또한, 청정 에너지산업과 인공지능·로봇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수소 경제 미래혁신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e-모빌리티산업을 타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활로를 찾을 방침이다.

요량농공단지를 조속히 완공하고,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와 송림·군서 농공단지에 국내·외 건설한 기업들을 유치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청년은 지역의 미래이기 때문에 청년과 여성 창업,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군정참여의 폭을 넓힌다.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프로그램 시행과 온라인 플랫폼 시스템화 등 사업 경쟁력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청정한 지역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환경권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소중한 권리다. 생존권적 기본권이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환경오염이 당장은 없다하더라도 그 위험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방적 행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열병합발전소의 무력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온세대 공동체의 따뜻한 복지 구현

영광군의 주된 산업은 농어업이다. 스마트 팜·농어업, 축산업으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급격한 산업화와 경쟁 사회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농사를 지으며 마음을 다스리는 치유농업과 체험어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신체대 젊은 농어업인을 육성해 변화된 농업환경에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나갈 복안이다. 노년층과 장년층, 청소년이 함께 돕고 돕는 농업 공동체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 지원한다.

인공지능·로봇 미래 신산업 육성

e-모빌리티 연계 새 활로 모색

향화도향, 마리나향으로 조성

체류형 숙박단지 조성 제도 지원

신상필벌 원칙 투명한 행정 앞장



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 지원한다.

농어업은 생명산업이자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산업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1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여성 농어업인 공익수당도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보편적인 복지 실현에 중점을 둔다.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소득은 줄고 물가는 대폭 상승했다. 일자리는 크게 줄어들었고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되돌리기에 너무나 어려운 현실에 다가서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다가오는 추석 전에 군민 모두에게 행복지원금 100만 원을 반드시 지원해 줄어든 가계부에 숨통을 틔우고 지역 경제를 살려낼 예정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조화로운 사회가 됐을 때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다. 그러나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소외계층의 사회참여의 길을 더욱 넓혀 줘야 할 것”이라며 “어르신 100원 버스를 운영하고 노인건강증진 복합문화 센터를 건립하며 어르신들의 맞춤형 통합일자리 지원센터를 개설함과 동시에 경로당 운영활동비를 크게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체육관을 건립하고 복지타운을 중

축해 장애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장애인 셔틀버스를 운행해 이동권을 대폭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명품교육 실현

‘교육은 100년지대계’다.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가 자녀교육이다. 영광군 인구통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중·고등학교 진학 때 대도시권으로 많은 인구가 이동하고 있다. 영광교육지원청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지역실정에 맞는 명품교육을 실현할 예정이라고 강 군수는 밝혔다.

또한, 맘(Mom)편히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어학연수와 해외 도시와 상호 방문 교류, 예체능 관련 다양한 체험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체육·문화 체험 중심 관광도시

민선8기 영광군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군민들의 소박한 작품들을 전시하는 등 일상속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과 공연활동의 중심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문화예술인촌을 조성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여행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단체여행보다는 ‘나와 현재의 행복’ 개인의 다양한 취향에 따른 여행 트렌드가 자리 잡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자유롭고 고급스런 체류형 숙박단지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할 예정이다. 유명한 작가나 활동가, 여행 유튜버들과 제휴해 영광을 널리 알리겠다는 것. 예를 들어 백수해안도로와 염산 철도, 향화도 등 천혜의 자원과 4대 성지 세계화를 통한 관광벨트 조성과 해양레저산업의 도약을 위해 향화도향을 마리나향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신뢰·공감하는 군민 중심 행정

강 군수는 평소에도 “진정한 개혁은 나부터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권력형 비리와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군정불신을 낳고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

해 왔다.

강 군수는 공사계약과 인허가, 공모사업과 채용 등 주요군정의 공개를 통해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고 공무원의 의식전환과 끊임없는 혁신으로 군정 발전을 이뤘다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광대전환, 군민과 행복동행

강 군수는 “영광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95년, 민선 1기가 시작된 이후 어느덧 28년이 지났으면서 풀뿌리 주민자치시대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영광군은 새로운 미래를 맞이해야 하며 현재는 고위험 지역소멸지수에 따른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한 곳으로 지정됐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강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침체의 회복, 정주여건과 교육·문화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주민복지육구 실현 등 수많은 과제를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거듭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이번 선거기간 동안 군민 한분 한분의 어려움과 간절함,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청정에너지 발전 산업, e-모빌리티 산업과 인공지능·로봇 시대에 부합하는 신산업 발전가능성 등 새로운 희망도 확인했다”면서 “이제는 군민 여러분과 함께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매진하고 또 매진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영광군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 모두의 커다란 관심과 절대적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직 내 고향 영광 발전과 위대한 군민 여러분의 행복과 희망찬 미래를 위해 뛰고 또 뛰겠다”면서 “지난 선거기간동안 정치적 지향점에 따라 반목과 갈등이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며 화합과 희망의 미래로 달려가자”고 덧붙였다.

/영광=곽용순 기자

주요 공약

▲청정 에너지산업과 인공지능·로봇 미래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수소 경제 미래혁신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 ▲요량농공단지 완공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와 송림·군서 농공단지에 국내·외 건설한 기업 유치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프로그램 시행 ▲열병합발전소의 무력화 ▲스마트 팜·농어업, 축산업 소득 증대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 ▲여성 농어업인 공익수당 추가 지급 ▲행복지원금 100만 원 지원 ▲어르신 100원 버스 운행 ▲노인건강증진 복합문화 센터를 건립 ▲장애인 체육관을 건립 ▲복지타운 증축 ▲향화도향을 마리나향으로 조성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정기 개최

강종만이 걸어온 길

▲광주 동신고 졸업 ▲광주대 법학과 졸업 ▲광주대 산업대학원 법학 석사 ▲전남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조선대 대학원 법학 박사 ▲조선대 법과대학 초빙객원교수 ▲백수해안도로금고 이사장 ▲제2~3대 영광군의 회 의원 ▲제7대 전남도의회 의원 ▲제46대 영광군수

(왼쪽부터)

▶강종만 군수가 최근 추모공원 현장 및 백수 군립요양병원 현장을 방문했다.

▶영광군이 최근 국고 건의 사업 추진현황 및 도 전환사업 발굴보고회를 가졌다.

▶강종만 군수가 최근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현장을 찾았다.

